

HAPPY700 평창 우리의 고향

2002 郡政計劃 報告

 평창군
PYEONGCHANG COUNTY

2008 年 10 月 10 日

2008 年 10 月 10 日

2008 年 10 月 10 日

군 정 기 조

□ 군정 구호

- ◆민선2기 군정 출범과 동시에 우리군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개발한 브랜드 『HAPPY700 평창』이 지난 4년간 검증결과 전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므로 2002년 군정구호를

HAPPY700 평창 우리의 고향 으로 확정

□ 평창군의 목표

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축산업과 산림자원을 특성과 테마화하여

환경 + 문화 + 산업 + 레져스포츠 기반확충 + 인심서비스 = 관광화

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해 나가고자 함

□ 2002년도 역점시책

-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안마련
- 산업기반의 재정비
- 지역발전의 계기조성
- 체계적인 환경관리 대책수립
- 인간중심의 복지시책 실현
- 종합관광의 체계확보
- 도민생활체육대회의 성공 개최
- 2010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최선

2002년 우리군의 살림

- 우리군의 금년 당초예산은 1,439억원으로서 2001년 (1,192억원)보다 17.2%가 증가되었고, 연말까지 1,650억원이 예상됨(2001년 1,619억원)
 - 의존세입은 1,152억원으로 지방교부세 546억원, 보조금 426억원, 양여금이 161억원, 재정보전금이 19억원임.
 - 자체세입은 287억원으로서 지방세 104억원, 세외수입이 183억원임.
 - 우리군 부채는 총 213억원(원금 168억원, 이자 45억원)으로 상수도 확장 및 공공청사 신축을 위한 차입금으로서 2013년까지 분할 상환할 계획으로 재정여건에 큰 부담은 없으나 매년 줄여가고 있음.
- ※ 연도별 부채규모 : 98년 250억, 99년 273억, 2000년 244억
- 이렇게 편성한 예산을 우리군의 가치와 이익을 창출하는 「전략사업」, 계속 추진해오던 「숙원사업의 알찬마무리」 등 지역안배식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우리고장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임.

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

I 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

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장기 대안 제시

- 경쟁력 제고 및 고정고객 확보대책을 위하여 군, 읍·면별로 가칭 「지역경제협의회」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겠음.
-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지역내 생산활동 수준, 산업구조 등 「경제지표조사」로 각종 개발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, 대안을 제시하겠음.
- 금년도 발주사업중 사업예산의 80%가 조기발주 되었으며, 지역업체 수의계약 확대, 각종 시설자재, 장비 및 물품의 관내 구입을 적극 추진하겠음.

②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

- 내고장 특산품과 중소기업제품 가이드 책자를 발간(2,000부)하여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, 업체별 무료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음.
-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자금(5억원)을 지원하고, 외지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 및 장비(330여대)의 관내이전으로 세수증대 및 외주를 줄이고
-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번영회 지원 및 5일장의 특성화로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.

③ 주5일 근무제 대비 관광객 수용태세 확보

- 오토캠프장, 민박 등 부족시설을 확충하고, 정보탐색활동 증가에 따른 인터넷 홍보체계를 확립할 계획임.
- 4계절 전략적 축제와 농박 및 그린투어의 도입과 체험형 관광(래프팅, 패러글라이딩, 생태관광, 주말농장 등)을 적극 개발하겠음.
- 관광 안내체계 보완·Data Base의 구축과 투어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, 홈페이지 개선으로 「주5일 근무제의 1번지」가 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고,
- 농촌다움의 보전과 재창조로 다양한 「농촌관광」의 아이টে을 개발함.

④ 인구증가 대책

- 학교, 직장, 문화, 병원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인위적인 인구 증가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.
- 수도권과의 2시간대 교통망, 주5일 근무제, 평창 대학설립 등 여건이 성숙되고, 집단화된 휴양마을, 실버타운 등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으나,
- 환경보전 등을 고려한 선별적 허가와, 우리지역의 환경을 잘 지키며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4년내 인구 5만이상 회복운동을 추진하겠음.

Ⅱ . 산업의 기반 재정비

① 환경농업과 흙살리기 사업에 주력

-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해
 - 평창(주진), 봉평(무이)에 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매년 투자를 확대하고,
 - 오리농업 쌀생산단지 23ha를 2006년까지 100ha로 확대 조성할 계획임.
- 평창특미의 명품화를 위하여 도정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원을 지원하여 가공산업을 육성지원하고,
- 흙살리기운동의 지속추진을 위하여 우수마을 시상제를 확대하고, 토양개량제 4,280톤, 녹비호맥종자 200톤, 객토 1,222ha 등을 지원함.

② 농사관리체계 개선을 위해

- 「농업정보화센터」 가동으로 농업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, 전자상거래, 작목별 재배면적·생산·판매량·판매가격 등 생산에서 채고까지 모든 과정을 종합 관리하는 획기적인 체제를 구축하겠음.
- 「서울사무소」는 직판행사 등 직접 판매와 고정소비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,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형아파트를 대상으로 집중 공급할 계획임.
- 농가·농장은 농박관광과 연계하여 그린투어·팜스테이 기반을 구축, 고정고객 확보의 틀을 마련할 계획임.

③ 튼튼한 농사기반의 확충

- 전 농지의 기반을 정비한다는 목표아래
 - 대화 산지포지구에 전국 최대규모(290ha, 87억원)와 미탄 기화지구에 30ha(8억원) 정비를 추진중임.

- 대체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
 - 고랭지양파, 감초, 대화초명성 되찾기 지원, 포도 및 산머루 확대재배와
 - HAPPY700콘, 산채, 가시오갈피, 지구자나무 재배단지 등 지원을 통해 「농산물 고품질화」에 중점 노력하겠음.

④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

- 우리군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화훼(백합, 칼라 등)의 수출기반 조성(110백만원)과
- 산더소니아, 시금치, 시범농장과 수출 포장제도 확대 지원할 계획임.
- 농산물 가공기반 구축을 위해 1차 사업으로 감자, 산머루, 가시오갈피, 메밀가공 기반을 2003년까지 구축하고
 - 고추, 잡곡, 양파, 당근, 약초에 대한 가공방안을 강구할 계획임.

⑤ 지속적인 축종·육질개발 및 브랜드화로 축산경쟁력 확보

-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분뇨처리, 액비발효시설, 톱밥 등을 지원하며, 한우 번식기반 및 유기질 퇴비생산에 240백만원을 투자함.
- 대체축종의 개발을 위해 경주마 단지를 지속 지원하고, 평창사슴 및 면양을 브랜드화 할 계획임.

⑥ 산촌의 가치창출과 산지의 자원화에 중점

- 산림의 자원화를 위해
 - 2001년도 조성한 남산 삼림육장을 비롯하여, 산촌종합개발(2,029ha, 아로마체험장, 테마민박, 주말농장, 삼림육장 등) 사업을 외지인 유치,의 일환으로 지속 추진하고, 산림농업, 산림복합경영 등 산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음.
- 산지이용 극대화를 위해 임도(신설 2km, 개량 11km)를 친환경적으로 시설하고
- 도로변 가로수 및 자생식물식재, 조림, 육림 등을 추진함.

Ⅲ.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

① 민자유치로 지역발전 계기마련

- 강원도에서 추진중인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조성(750kw 6기)에 우리군도 일정지분 투자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,
 - 민자로 103기(98MW)를 내년까지 설비하여 관광상품화와 연계 할 계획임.
- 지방세의 감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
 - 관광레저, 생태마을, 사이버사무실, 연구소, 별장 등 민자 유치를 위해
 - 타 자치단체와 차별된 국·공유지임대, 인·허가편의를 제공하겠음.
- 금년 5월에 기공식을 갖은 「평창광희특수전문대학」 설립을 위해 취락지구 지정 및 기반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,
- 테마와 특색있는 허브마을, 자생식물원, 한방사우나, 황토마을, 전원마을 등의 조성을 권장 유도함.
- 강원도와 협의 대관령 역사문화촌을 강원도 향토관광의 중심이 되도록 함.

② 도로망 개선을 통해 외자 투자유치 고취

- 영동고속도로 4차선 전구간 확장개통 및 부채도로 연결 완료
- 지난 3년간 국도 위험구간 17개소를 개수하였으며, 평창 주진·재산초교앞 주택가 등 위험구간을 계속 정비할 계획임.
- 방림~정선간, 진부~정선간 국도, 원동재 터널 등 주요 도로의 확·포장 설계가 주민의 이익이 되도록 유도하겠음.
- 군도 확·포장은
 - 주진~방림·창동~무이간 (1.9km 19억원), 신리~마평은 모릿재 터널 공사를 포함하여, 금년말까지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,
 - 평창교와 평창터미널 부근 4차선도로는 금년 8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음.

- **농어촌도로 공사로**

-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에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,
- **마을안길**은 13km에 18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100% 포장을 완료할 계획임.

③ **재해·재난위험시설 정비**

- 수해상습지 개선은 오대천, 흥정천에 34억원을 투자하여 제방을 정비하고,
- 위험 교량 정비사업으로
 - 다수교 및 사리평교 재가설 공사를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,
 - 여만교, 한탄교, 송정교 보수·보강에 34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임.
- 민간 재난구조단체에 스쿠버장비, 모터 보트 등 구조장비를 지원하겠음.

④ **쾌적한 정주기반조성**

- 미탄, 방림, 장평 취락지구 정비와 도시계획도로 (5개지역)를 정비하고,
- 오지개발사업(방림, 용평), 소도읍정비(평창), 폐광주민지원사업(미탄) 등에 지속 투자하며,
- 지난해 처음 도입한 「우수건축물 시상제」 등을 통해 주거환경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조성하겠음.(주거환경은 그린투어의 기초가 됨)
- 영월댐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지원사업 중단으로 어려웠던 지역 주민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균형발전을 이루어 가겠음.
 - 금년에는 마무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,
 -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주민지원을 위해 전세대에 대한 재조사를 완료 하였으며, 타당성 검토를 걸친후 연차 지원해 나갈.

Ⅳ. 체계적인 환경관리대책 수립 시행

① 기초환경시설 설치 및 개선

- 차기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금년말까지 부지선정을 완료하고,
- 하수종말 처리장시설로
 - 도암은 시설공사에 착수하고, 평창·대화·진부는 실시설계 후 발주하고,
 - 봉평은 2003년 설계를 걸쳐 2005년 이내 준공토록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음.
- 대화, 진부지역에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에 1,467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비하겠음.
- 2010년까지 34개소를 설치할 계획인 소규모오수처리장은 3개소(마하, 기화, 주진 660백만원)에 투자하고,
-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19개소에 194백만원을 투자하여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음.

②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

- 봉평상수도는 금년도에 용평상수도와의 통합 운영을 완료할 계획임.
- 미탄상수도는 이전확장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하며, 2004년까지 완공하겠음.
- 특히,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함.

③ 경관과 어울리는 환경친화적 하천정비

- 하천정비 환경성검토 및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3억원을 투자하고 소하천 위험지구 정비에 3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겠음.
- 소(沼)복원, 하천변 임목, 하상 바위 등의 보존대책을 강구하고, 하천변 자투리땅의 환경적 활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임.
- 농지의 오염원 차단을 위해 「밭두렁 만들기」 사업도 검토할 계획임.

V . 인간중심의 복지시책 추진

① 이웃의 작은 어려움까지 도와주는 따뜻한 군민정신의 정착

-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음.
- 자원봉사자(53개단체 2,200여명)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삶의 의지와 희망을 주고, 범군민적 이웃돕기운동 전개 등 봉사활동의 생활화를 추진해 나가겠음.
-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지원(1,902명, 26억원)과 교육비 지원(104명, 76백만원)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겠음.
- 지역의 원로인 노인계층은 스포츠와 일거리갖기 등을 지원하고,
- 「노인복지기금」은 2005년까지 10억원을 조성(현재까지 550백만원 조성)하고, 경로당 8동(8억원)을 신축하며,
- 「장애인복지기금」은 2003년까지 5억원(현재 3억 조성)을 조성 하고, 자립장 운영지원 및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원하겠음.
- 금년부터 2005년까지 「여성발전기금」 5억원을 조성하며, 「여성부업개발센터」 조성을 검토하고, 실질적 사회참여와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함.

② 청소년 육성 지원을 대폭확대

- 관내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
- 평창중 다목적실 신축, 대화고 실습실, 봉평고 체육관 보수비를 지원함.
- 체험활동 및 어울마당, 공부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해 나감.

③ 군민의 평생건강 관리체계 구축

-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
- 21세기형 「지역보건정보 네트워크를 구축」하여 보건정보 교환과,
- 「원격진료 영상시스템」의 운영활성화 등 의료체계를 개선하겠음.
- 의료취약 주민에 대한 「포괄적 방문보건사업」을 확대하고,
- 성인병 예방교실 확대운영과, 군민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.

VI. 종합관광의 체계확보

① 종합관광 체계는 부존자원을 관광객유인 요소로 발전시키는데 중점

- 향토문화는 우리고장 역사(군지발간), 문화유적 발굴(분포지도 제작), 향토민속(놀이·소리를 중심으로한 총서 발간)을 발굴하여 전파하고
- 주거환경은 우리고장과 어울리는 외형과 현대식 내부 시설로 시골의 멋, 건강, 편리를 추구하는 시설로 유도하여 농박·그린투어에 대비하고,
- 산업은 농장과 목장을 정비하여 관광 및 주말농장·목장으로 유도하며,
- 먹거리는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개발과 관광객 기호를 다양하게 충족시키는 대안을 마련하고,
- 레저 스포츠는 읍면단위 체육공원 확충과, 등산·MTB·래프팅·승마 및 트래킹 코스 등을 개발하고, 골프·스키장의 유치를 기업과 협의해 나갈 계획임.
- 마을조성은 농지와 산록이 연결된 부분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배치된 민박촌 조성을 목표로 의지 있는 마을과 협의해 나갈 계획임.

② 테마중심의 관광문화 기반 확충을 위해

- 「효석문학마을」은 점진적으로 문화관광의 테마마을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에 「문학관」과 「메밀자료관」을 완공하고,
- 「무이예술관」은 「체험 예술공간」으로, 「덕거초등학교」는 「연극학교」로, 「용전초등학교」는 「강원오페리체험학교」로 테마화 해나감.
- 개인이 운영하는 한국자생식물원, 허브나라 등의 모델을 약초, 김치, 장, 가시오갈피 등의 특산물에 적용하여 테마농장으로 조성(관광화)

③ 이렇게 조성되는 문화, 예술, 주거, 산업, 레저스포츠 기반은

- 연결된 관광 요소와 상호 연결하여 코스화하고, Farm Stay, Home Stay, Green Tour 등의 전략을 강구해 나감.
- 방문객 체험 Program 개발로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임.

④ 방문객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 정비와 관광 가이드북, 입체지도, 홍보용 CD를 제작 전국에 홍보하며, 도로변 조경 및 쉼터 조성을 적극 추진함.

VII. 도민생활체육전의 성공 개최에 최선

① 제11회 도민생활체육대회는

- 2002. 9. 30 ~ 10. 2 까지, 3일간
- 15종목 4,000명의 임원 선수가 참가하는 우리군 초유의 도단위 행사로
- 우리군의 모습을 과시, 홍보하는 절호의 기회임.

② 종합운동장은

- 행사후 학생훈련, 외지선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
- 육상트랙 우레탄 시설, 위험요소가 내재한 본부석 개축, 종합테니스장 등에 5,020백만원을 투자하여 이기회에 정비하고,
- 평창교 및 주변도로는 1년 앞당겨 8월말 완공할 계획임.

③ 각 읍면에 분산된 종목별 경기장은

- 대회유치 및 진행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.

④ 주민 경쟁력 제고와 결집을 위해

- 이번대회의 진행을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하도록 협의하고,
- 숙박, 음식, 서비스 등은 자발적 실천을 통해 능력을 배양함.
- 자원봉사 회원의 모집을 통하여 봉사체전으로 유도하고자 함.

VII. 2010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최선

① 유치시 기대효과

- 60만명의 관광객, 투자·소비·부가가치가 수조원, 3만명의 고용효과 예상.
- 그동안 침체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획기적인 확충과, 지역발전을 최소한 30년이상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.

② 향후일정

- 2002. 8. 31 : 공식후보도시 5~6개 선정(IOC집행위원회)
- 2003. 1. 10 : 공식후보도시 개최신청파일 제출
- 2003. 2~3 : IOC 조사평가위원단 공식후보도시 방문
- 2003. 7. 2 : 개최지 결정(체코 프라하)

③ 추진전략

〈1 단계〉 2003. 2~3월 IOC 평가위원단 방문대비

- 우리고장 역사문화, 동계스포츠 역사 등을 발굴·정리하여 이해시키고,
- 주변 시가지, 광고물·간판, 숙소, 음식점 등의 정비와,
- 종사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, 외국어 능력 제고 등에 대한 「국제 수준급 종합계획」을 수립 12월말까지 추진 마무리할 계획임.

〈2 단계〉 2003. 7월 개최지 결정에 대비하여

- IOC위원 126명을 대상으로 초청 및 방문을 통해 「평창」을 홍보 설득하고,
- 국내 IOC위원(김운용, 이건희, 박용성)을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며,
- '98동계올림픽 개최지 일본 나가노시의 「아쿠바촌」과 교류협약에 이어 미국 「유타주」내 올림픽개최 자치단체와 교류로 노하우 전수의 계기로 삼음.

〈3 단계〉 「평창동계올림픽」 확정후

- 중앙정부와 협의 SOC 및 사회Infra 구축, 종합계획 수립 시행
- 강원도와 협의 올림픽 준비조직 구성 추진